
2018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교수회 검토 보고서

2018. 11. 12.



[교수회]

목 차

I. 들어가며	1
II. 검토사항 및 제언	1
III. 결론	3

I. 들어가며

충남대학교 교수회는 「충남대학교 예산편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8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예산편성의 적정성·효율성·형평성의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II. 검토사항 및 제언

1. 전체적으로 큰 쟁점이 없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블록교체 및 화단 방수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부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시급성으로 인해 신청액 전액을 인정 하였으나, 학교예산의 부족을 고려한다면 수입대체경비기관은 가급적 수입 대체경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의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임.

■ 교수회 권고

- 자체인력의 부족, 격주휴무제의 운영 등으로 한계가 있으나, 학교의 차원에서 대관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통해 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학교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뉴리더 인재양성사업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 신청 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필요성과 함께 대전광역시

등에서 사업비가 배정될 때까지 3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학회계계약직원의 채용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학본부 총무과의 인력수급정책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항상 별도의 계약직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직원의 수가 많은 우리학교의 현실에 맞지 않은 주장임. 더구나 정부재정지원사업이 향후 중단되거나 선정에서 탈락될 경우 기존 전담 인력의 계속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런 점에서 전담인력의 채용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임.

■ 교수회 권고

- 학교의 차원에서 적절한 인사관리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사안별로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교육기자재 중앙구매

■ 현황 및 문제점

- 단과대학별로 교육기자재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던 것을 본부에서 일괄 구매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취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교수회 권고

- 중앙구매를 추진하는 동기에 맞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매의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노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특정 학과 또는 특정 단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학과 또는 여러 단과대학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기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원칙을 세울 수 있음. 다만, 특정 학과 또는 특정 단과대학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전공의 특성이 무시된 채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도 안 됨.

Ⅲ. 결 론

교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2018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에 대한 위의 사항들을 예산편성위원회에서 “2018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에 반영하여 재정위원회에 상정하기 바랍니다.